

세계 식품 가격의 불안정 요인*

김지연

주요 식료품의 가격은 2010년 6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식량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1. 서론

지난 40년 동안 농산품에 있어서 다섯 번의 급격한 가격상승과 하락은 흔치 않은 일이다. 주요 식료품(곡물, 지방종자(oilseed), 식물성 기름, 육류, 해산물, 설탕, 과일)의 가격은 2010년 6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07-08년의 식품 가격 상승을 연상시켰으며, 국제 정책입안자들과 저소득층 소비자, 특히 식료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은 식량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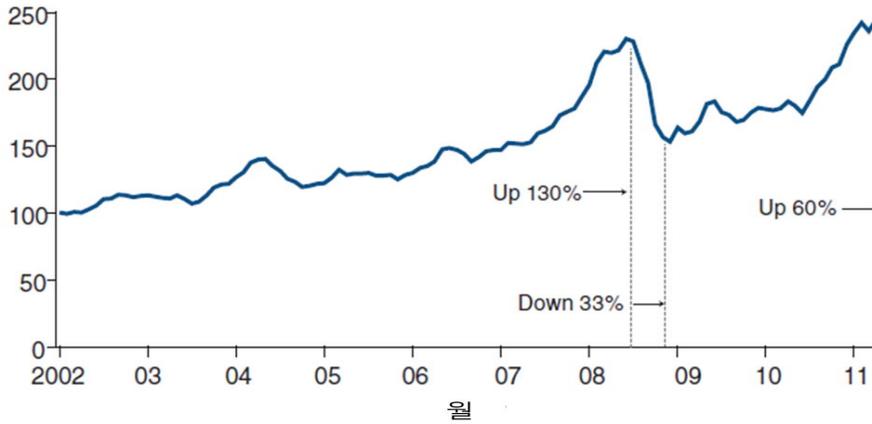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에서 매달 제공하는 식료품 가격 지수는 1980년부터 2001년 말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 동안 식료품 가격지수는 47% 상승하였으며, 그 후 2008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 1월보다 130% 이상 상승하였다. 최고치를 기록한 가격지수는 2008년 하반기에 하락세를 보이다 2011년 4월까지 59% 상승하였다.

주요 곡물인 밀, 쌀, 옥수수, 대두의 가격지수 변동은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 가격 지수는 IMF의 월별 가격에 세계 무역 비중으로 가중치를 주어 USDA 경제연구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6월에 발간한 "Why have food commodity prices risen again?" 보고서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지연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jykim12@krei.re.kr, 02-3299-4251).

소(Economic Research Service: 이하 ERS)에서 만든 것이다. 2002년 1월에서 2008년 6월 사이 주요 곡물의 가격지수는 226% 상승하였다. 그 후 2008년 하반기에는 주요 곡물의 가격지수는 40% 감소한 반면 식료품 가격지수는 33% 감소하였다. 2010년 6월의 식료품 가격지수는 상승하였지만 주요 곡물의 가격지수는 11% 감소하여 최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상승하였다. 2010년 6월-2011년 2월까지 식료품 가격지수는 39% 증가하였지만 주요 곡물 가격지수는 70% 상승하였다.

그림 1 2002년 1월 이후의 식료품 가격지수 추세



주: 가격지수는 2002년 1월을 100으로 함.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그림 2 주요 곡물과 식료품 가격지수 추세



주: 1) 밀, 쌀, 옥수수, 대두 가격 지수는 무역량에 가중치를 줌.

2) 가격지수는 2002년 1월을 100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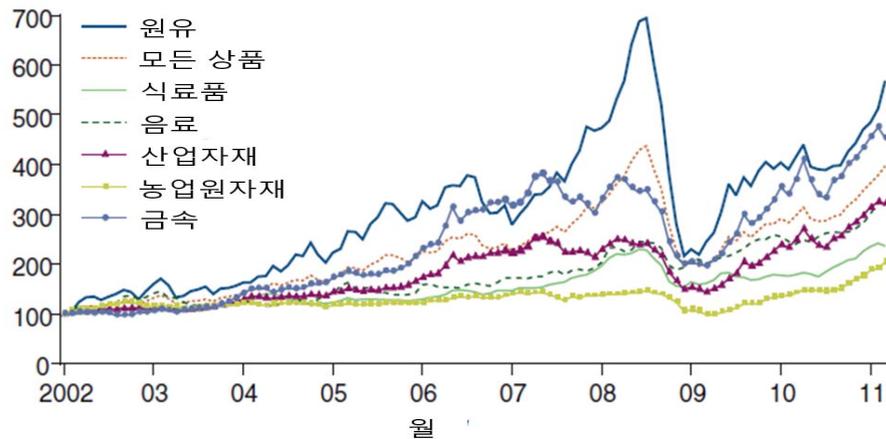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alculations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식품뿐만 아니라 에너지, 금속, 음료, 농업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도 상승하였다.

비농산물 가격 상승

식품뿐만 아니라 에너지, 금속, 음료, 농업원자재 등의 가격 지수도 상승하였다. 이는 2002-08년 동안에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세계 경제 요인들에 의한 상승으로 여겨진다. 이 모든 가격지수들은 2008년 중반에서 후반 또는 2009년 1분기에 최고치를 달성한 후에 감소하였고, 그 후 각각의 지수들은 식료품 가격 지수보다 더 상승하였다.

그림 3 식료품 및 에너지, 금속 등의 가격지수 추세



주: 가격지수는 2002년 1월을 100으로 함.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 가격지수의 변화 추세

식품 가격급등은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반영한다.

지난 40년간 농산물 가격은 다섯 번의 기간 동안 크게 상승하였다가 이전의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 6월부터 나타난 6번째 가격 상승은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식품 가격급등은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변화를 반영한다. 일부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공급량 감소, 또는 수요량은 증가한 반면 생산량이 감소하였거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급이 충분히 반응할 때까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였다. 종종 농산물의 생산량과 무역 정책의 변화는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부분의 변화를 유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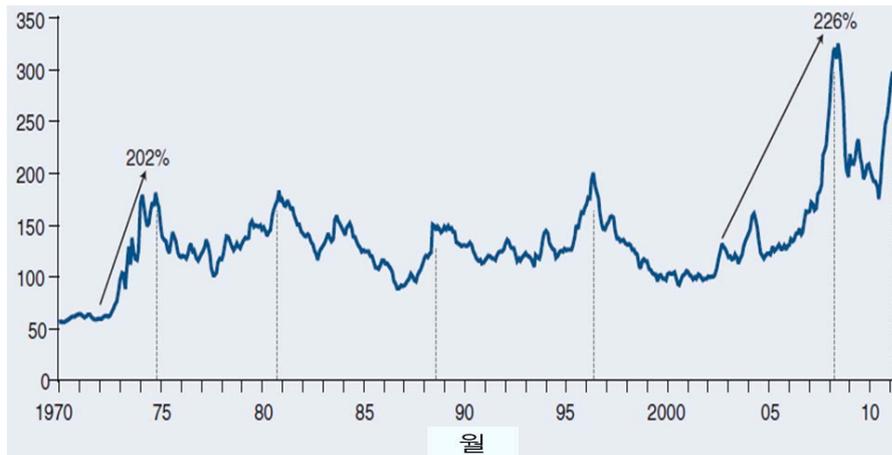
최근의 곡물 가격은 1970년 이후 나타났던 가격상승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각 요인의 상대적 중

요도는 가격 상승과 하락의 크기와 기간에 따라 다르다.

1972-74년과 2002-08년의 가격 상승은 다른 기간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08년에는 가격 상승의 움직임은 길었지만 하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처음 네 번의 기간 동안의 가격지수는 6~7년을 주기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2008년에 나타난 최고치는 이전기간의 최고치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2010-11년 가격 급등은 2008년 6월 이후 3년도 지나기 전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격 급등은 1970년 이후 나타났던 가격 급등보다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주요 곡물 가격지수는 8개월(2010년 6월-2011년 2월) 동안 70% 증가하였다.

가격이 급등하였을 때 시장 조정으로 인해 가격은 급등하기 전으로 돌아오거나 과거의 가격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이 결정되었다.

그림 4 곡물 가격지수의 변화 추세



주: 밀, 대두, 옥수수, 쌀의 가중평균치임.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3. 식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들

2002-08년 식품 가격 상승 요인이었던 대부분의 장기적 요인들은 최근 가격 급등의 원인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장기적 요인들로는 인구증가, 1인당 소득증가, 1인당 육류소비 증가, 달러의 가치하락, 에너지 가격 상승, 국제 바이오에너지 생산 증가, 낮은 농업 생산성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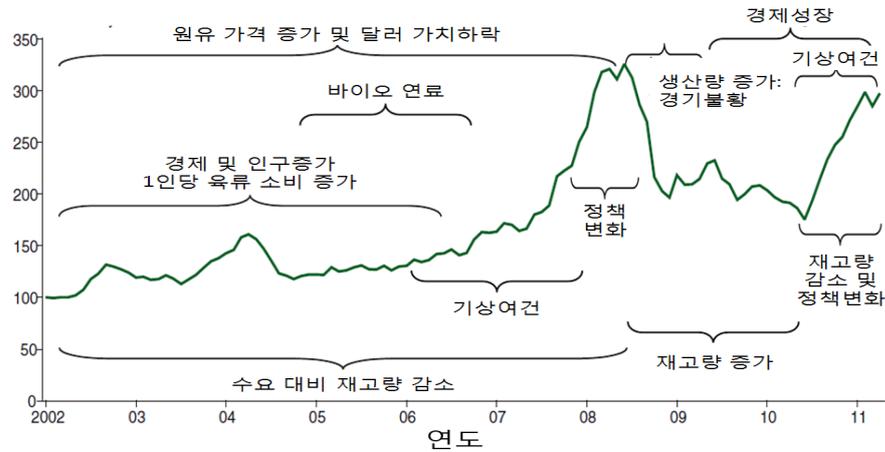
2007-08년과 2010-11년의 급격한 가격 상승의 단기적 요인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곡물과 유지종자(oilseed)의 재고량 감소와 무역정책을 변화시켰

식품 가격상승 요인은 인구증가, 1인당 소득증가, 달러의 가치하락, 낮은 농업 생산성 등이 있다.

다. 특히 2010-11년의 가격상승은 주요 식량생산지역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국제 곡물 생산량과 재고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국제 곡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2009년 경기불황 이후 경제성장과 저/중소득 국가의 식품 수요증가도 식품 가격상승을 부채질 하였다.

인구 및 식품소비 증가,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 재고량 감소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은 2002-08년, 2020-11년의 식품 가격상승에 기여하였지만 각 시기의 상승요인은 다르다.

그림 5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주: 1) 2002년 1월을 100으로 함.

2) 밀, 쌀, 옥수수, 대두가격을 무역비중으로 가중치를 주어 곡물가격지수를 계산함.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alculations based 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4. 가격상승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경제요인

세계 상품 및 농산물 시장에서의 가격등락은 세계 경제성장, 달러가치의 변화, 원유가격 등의 경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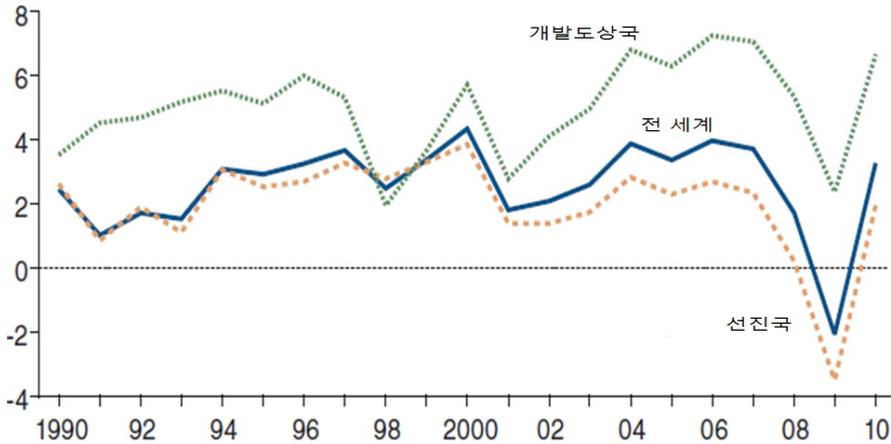
2002-08년, 2010-11년의 가격 상승 추세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화에 서 나타났으며, 2008년에 최고치를 갱신한 후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세계 상품 및 농산물 시장에서의 가격등락은 세계 경제성장, 달러가치의 변화, 원유 가격 등의 경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1) 경제 성장

2008년 세계 경기 침체는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2001~08년 세계 경제는 2.9% 성장한 반면 2009년에는 2% 하락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저/중소득 국가에서는 경기침체가 오래 가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의 고소득층이 증가함으로써 식품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농산물 수요 증가로 이어져 식품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그림 6 세계, 선진국, 개도국의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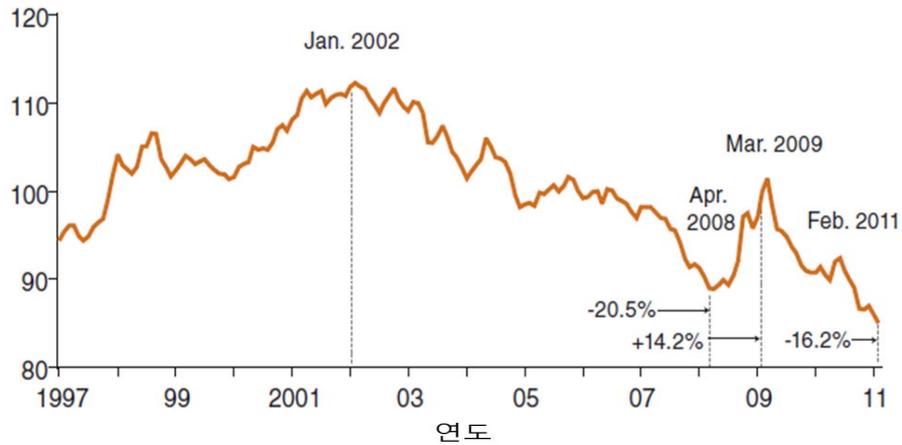
자료: USDA,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0, February 2011.

2) 원율의 변화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은 2008년과 2010-11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일조하였다. 수입국의 화폐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수입국의 수입비용을 감소시킨다. 미국은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 달러의 가치 하락은 미국의 수출량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의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켰다.

2002년에서 2008년 4월까지의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2008년 대부분의 재화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중반부터 2009년 3월까지 달러의 가치는 증가하였지만 2009년 3월 이후로 다시 하락하였다.

그림 7 미국 농산물 무역지수



주: 1) 2005년을 100으로 함.

2) 농산물 무역지수는 미국 농산물 수출액을 가중치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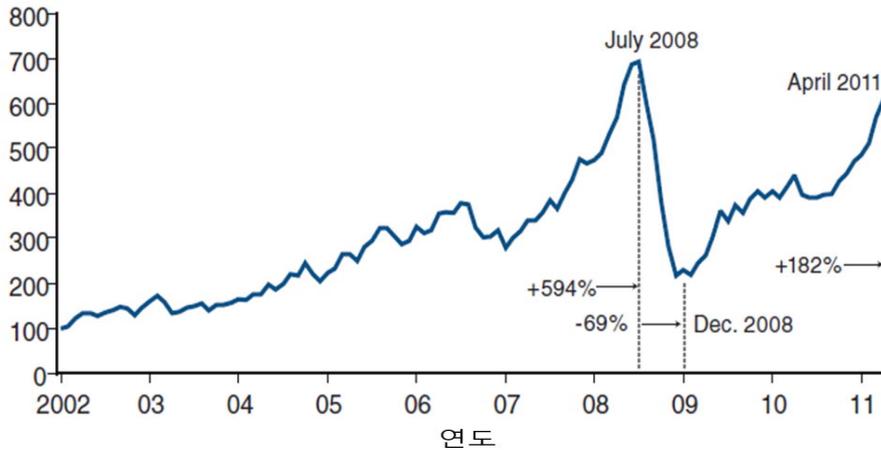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http://www.ers.usda.gov/Briefing/Macroeconomics/>.

3) 에너지 가격

중국, 인도와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급격한 제조업의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2002년 초반부터 2008년 중반까지 원유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2008년 7월 평균 원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으며, IMF의 월별 원유 지수는 2002년 1월보다 594% 높은 수준이었다.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초의 세계 경제침체로 인하여 다른 에너지원과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09년 초반 원유 가격은 최고치보다 약 70% 하락하였다. 2009년 세계경기 침체이후 개도국의 에너지 집약적 경제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원유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1년 4월 원유 가격은 2008년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08년 12월 가장 낮은 수준일 때 보다 약 3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해상 운송비는 식료품 수입비용에 영향을 미쳤다. 식료품 가격이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처럼 해상운송비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1월에서 2007년 12월 까지 350% 이상 증가하였다. 고유가로 인한 해상운송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해상운송비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2008년 말 낮은 원유가격,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선박의 증가로 해상운송비는 90% 이상 급락하였다.

그림 8 원유 가격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5. 농산물시장의 성장

세계 경제 전반의 식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다양한 장/단기 추세로 농업 분야의 가격 상승을 압박하였다.

1) 축산물 소비의 증가

세계 소득 증가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1인당 육류 소비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매년 1.2% 증가하였다.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쇠고기 소비량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곡물과 단백질 사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육류 생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의 육류 생산 기반은 사료 요구율(feed conversion)이 충분하지 않아 향후 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육류생산은 가축의 생육기간이 길다는 특성으로 인해 사료용 곡물과 축산물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다.

2008-09년 세계 경제 침체가 깊어짐에 따라 육류 소비는 감소하였고 육류 중에서도 가격이 낮은 닭고기로 소비가 이동하였다. 낮은 육류 소비로 2009년 세계 육류 수입량은 120만 톤(5.5%)이 감소하여 1993년 이후 육류 가격은 비교적 낮게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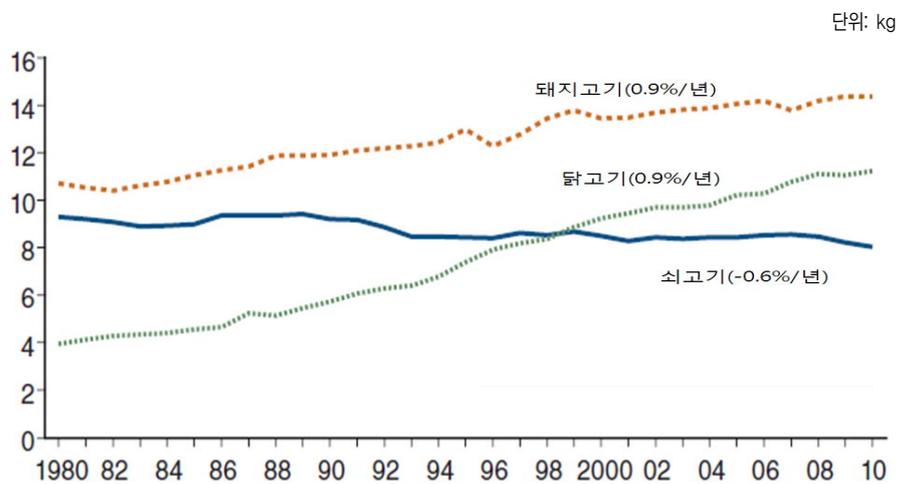
가축의 생육주기가 길다는 특성 때문에 세계 육류 생산은 2008-09년 수요 감소

소득증가와 식습관 변화로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곡물과 단백질 사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에 재빨리 대응하지 못해 과잉생산 되었다. 2010년 초부터 세계 경기침체가 회복 되기 시작함에 따른 소득증가는 육류 소비 증가에 반영되고 이로 인해 육류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올해의 육류 생산량은 이전에 결정된다. 2010년 세계 수요가 증가하여 육류가격이 높았을 때의 돼지고기 및 쇠고기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생산량 결정은 이전에 육류가격이 낮은 수준일 때 결정된 것이다.

국제 육류시장은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경기 침체기의 돼지고기 생산을 줄이는 결정은 2011년 나머지 기간 동안에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쇠고기 생산을 줄이기 위한 결정은 향후 몇 년에 걸쳐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세계 1인당 육류 소비량



주: 괄호안의 숫자는 1990-2010년도의 성장률임.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PS&D)databas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s database and baseline projections.

2) 세계 바이오 연료 생산

식료품 가격 형성에 있어 바이오연료의 영향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5년 동안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옥수수과 사탕수수의 수요량이 증가하였다. 2006-08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량의 증가는 매년 30%를 초과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곡물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세금 인센티브,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의해 바이오연료 생산이 증가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용의 범위에 있어서는 공급 원료의 수요는 가격 변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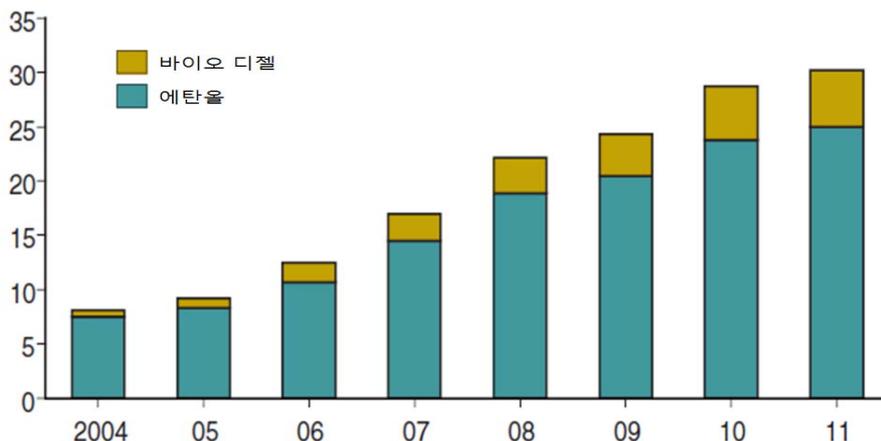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 부피에 따른 에탄올 소비세 크레딧(Volumetric Ethanol Excise Tax Credit : VEETC) 도입과 높은 원유 가격으로 인해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옥수수의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다시 옥수수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수출과 옥수수에 대한 사료 소비는 대체적으로 감소하였다.

미국의 에탄올 공급 확대는 지난 5년간의 급성장에 비해 느리지만 에탄올 생산에 이용되는 옥수수의 양은 옥수수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2010-11년 미국의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의 수요량은 총 수요량의 37% 수준이다.

그림 10 바이오에너지 생산량

단위: 10억 갤런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EU,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한 식물성 오일에 대한 수요 증가는 유지종자와 식물성 유지에 대한 가격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2010년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각각 57%, 46% 증가하였고, 두 국가는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생산량의 약 2/3을 수출하는데 이는 바이오디젤의 수출 관세가 20%로 대두유(32%)보다 낮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경우 대부분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국내에서 사용된다. 공통적으로 두 국가에서는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350만 톤의 대두유를 사용하며, 이는 총 대두유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양으로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의 대두유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2002-08년간 미국, 브라질, EU, 아르헨티나 등에서의 바이오연료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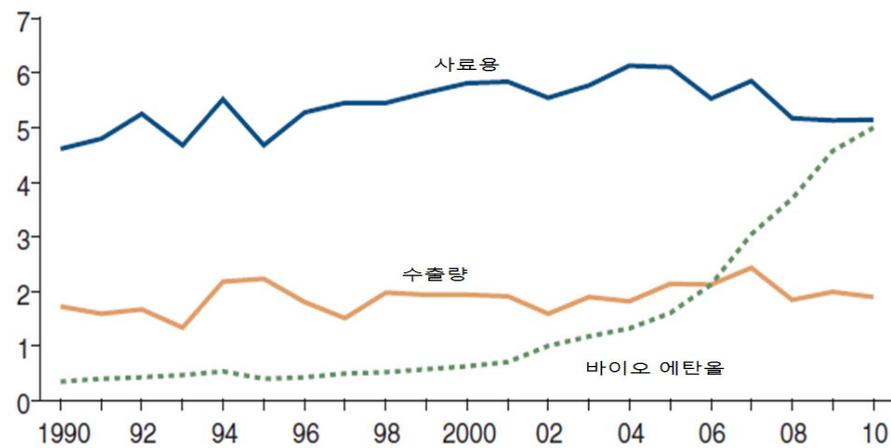
세계적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량 증가는 옥수수, 유채씨, 대두 등의 곡물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산량 증가는 옥수수, 설탕, 유채씨, 대두와 더불어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곡물가격은 바이오연료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2008년 하반기에 30% 하락하였으며, 비농산물 가격은 농산물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옥수수의 가격은 쌀과 밀의 가격 상승보다 적게 상승하였다.

2002-06년 동안의 식료품 가격상승과 변동은 바이오연료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07-08년의 가격급등에 바이오연료가 미친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그림 11 미국의 용도별 옥수수 수요량

단위: 10억 부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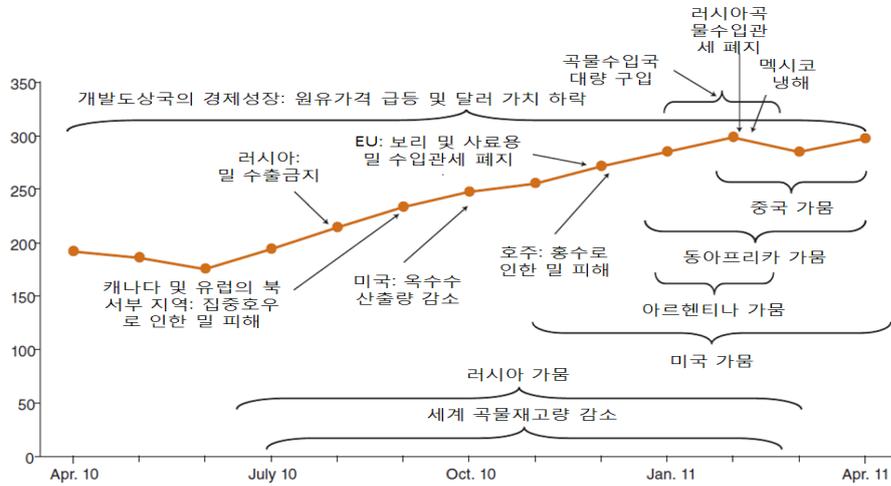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WASDE), May 2011.

3)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인 기상이변 연앙

2010-11년 농업 생산에 있어서 이상기후는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전에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였던 때와 마찬가지로, 2010-11년 농업 생산에 있어서 이상기후는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0년 6월부터 10개월간 발생하였던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2010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과 재고량은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생산량을 감소시켰던 기상이변은 2008년 가격상승 때도 나타났었지만 이는 2005-07년까지 3년에 걸쳐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 6월 이후 세계 곡물 생산량의 예상치는 2005-07년보다 급격히 하락하였다. 수요측면에서는 곡물과 유지종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재고량은 감소하였으며,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2 곡물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2010년 6월~2011년 4월)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표 1 기상이변 현황(2010년 6월~2011년 4월)

일자	국가/사건
2010년	
6월	(러시아) 심각한 가뭄과 광범위한 산불 발생으로 인한 급격한 생산량의 감소 (특히 밀)
9월	(미국) 가뭄 시작
11월	(호주) 홍수로 인한 밀의 피해
12월	(러시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겨울 작물 재배 면적 17.8% 하락 (동아프리카) 라니냐의 영향으로 가뭄이 시작
9월~12월	(미국) 주요 밀 경작지의 매우 적은 강수량 - 서 캔사스주는 지난 100년간 11번째로 낮은 강우 기록 - 동 콜로라도주는 3번째로 낮은 강우 기록 - 텍사스 편행들지역 15번째로 낮은 강우 기록
2011년	
1월 24일	(미국) 주요 밀 재배지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은 적지만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강우가 내림.
1월 25일	(중국) 가뭄으로 주요 밀 생산 지역의 작황 악화 (인도) 밀, 렌틸콩, 과일, 채소와 같은 겨울 작물에 서리 피해
1월 31일	(아르헨티나) 1월 말 안정적 강우가 내림

2월 10일	<인도네시아> 아체와 동 자바지역에 많은 비로 인해 대두 생산 감소로 작물 재배가 금지되어 쌀을 재배할 것임
2월 15일	<아르헨티나> 남서부를 제외한 지역에 적당한 비가 내려 옥수수과 대두 수확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대두 생산량이 3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측 <러시아> 가뭄으로 인해 겨울 밀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10% 감소할 것으로 보임. 밀 수출 금지령 2011년 10월까지 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월 17일	<멕시코> 옥수수 동사
3월 1일	<중국> 북쪽의 건조한 밀 재배 지역에 비가 내림 <브라질> 강우로 인해 대두 수확과 수출이 지연됨
4월 1일	<미국> 주요 옥수수 지역의 폭우와 홍수로 옥수수 파종 지연 겨울 밀 재배지역에 지속적 가뭄으로 향후 생산기대치가 감소.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ompilation based on news media reports.

4) 정책과 무역관행의 변화

식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을 완화시키고자 각 나라들은 정책과 무역관행을 변화시켰다.

2002-08년과 2010년 후반부터 2011년 초까지의 세계 식품 가격상승은 많은 국가들에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 두 기간 동안 각 나라의 농업 및 무역관련 정책 변화로 식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의 정책과 무역관행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높은 수출관세로 부과로 수출제한 및 수출할당량으로 수출규제
- 주요 식품에 대한 수출 금지 도입
- 수입관세 감소 및 일시 폐지
-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증가

일부 수출 제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2008년의 높은 가격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무역 자유화에서 자급률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최근의 가격 급등으로 정책은 2007-08년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수출제한과 수입국의 관세 인하 조치로 전환되었다.

표 2 정책과 무역관행의 변화 추이

일자	국가/사건
2010년	
8월 4일	<러시아> 가뭄으로 인한 밀 생산량 감소와 국내 가격상승으로 밀수출을 금지

8월 19일	〈미국〉 한 주간 총 수출량이 최고치를 경신, 수입업자들은 재빨리 더 비싼 가격이어도 러시아로부터의 밀 수입을 대체할 곳을 찾음.
9월 15일	〈벨로루시〉 수확량의 30% 감소로 EU에 유채씨유 수출을 금지함.
12월 22일	〈터키〉 공공부문 밀 수입업자들의 관세를 130%에서 0%로 감소시킴.
2011년	
1월 21일	〈중국〉 호주로부터 사료용 밀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함. 〈요르단, 알제리〉 평소보다 많은 양의 밀을 구매함.
1월 28일	〈알제리〉 80만 톤의 밀을 380달러에 구입함. 〈불가리아, 루마니아〉 많은 양의 사료용 밀을 가지고 있으나 제분용 밀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함.
2월 1일	〈요르단, 리비아, 모로코〉 인플레이션을 완충하기 위한 추가적 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방글라데시, 태국〉 주요 식품과 관련한 수입에 대해 수입세나 소비세를 감소함.
2월 3일	〈러시아〉 6월 말까지 수입 곡물에 대한 세금을 5% 증가함.
2월 10일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 추가적 밀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2월 15일	〈이라크, 튀니지〉 각각 35만 톤, 10만 톤의 밀을 구매함.
2월 17일	〈미국〉 대량 옥수수 수출이 3주전부터 백만 톤으로 집계됨. 밀 수출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수준임.
2월 18일	〈EU〉 보리와 사료용 밀 수입의 추가 세금 부과를 유예시킴.
3월 1일	〈러시아〉 사료비 감소를 위해 3개월동안 5%의 관세를 유예시킴. 〈중동, 남아프리카〉 식량안보재고를 늘리기 위해 미국, EU, 우크라이나에서의 수입을 증가시킴. 민간부문의 사료용 곡물의 수입도 자연스럽게 증가함. 〈스페인〉 남부 유럽의 사료용 곡물 공급의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수수를 구입함. 〈알제리, 리비아, 요르단〉 식품 수입업자들에 대한 세금이나 식품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거나, 주요 식품의 가격을 하락시킴. 〈쿠웨이트〉 소비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높은 비용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함. 〈모로코〉 음식과 가스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부는 합리적인 식품가격을 유지할 것을 약속함.
3월 3일	〈미국〉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다섯 번째 연속 백만 톤을 기록함.
3월 9일	〈터키〉 민간부문 밀 수입업자들에 대한 세금을 작년 12월 공공부문에 했던 것과 같이 130%에서 0%로 하락시킴.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ompilation based on news media reports.

6. 식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영향

1) 식량 안보

식품 가격상승으로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가들의 식량안보 불안과 폭동이 발생하였다.

식품의 가격 급등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앵겔지수가 높다.
2. 옥수수, 밀, 쌀, 대두와 같은 주요 식료품은 저소득층의 식품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저소득 소비자들과 식량 부족 국가들은 곡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보통 가격이 높은 수준일 때 수입을 한다.
4. 고정예산을 근거로 하여 식량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더 적은 양의 식량 원조를 받는다.

2010-11년 세계 식료품 가격증가로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는 한계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저소득 및 식량 부족 국가들은 2010년도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여 충분한 식량 공급으로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되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품 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국내 생산과 이에 영향을 주는 기상여건과 같은 요인들이 식량안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게다가 이는 국제 시장 통합 한계, 시장의 열악한 생산 기반 시설, 국가 보조금 등으로 국제 시장과 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 가격 전이가 발생한다. 각 나라 정부의 무역 및 식품 정책은 세계 식품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이되면서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2) 사회적 불안

2002-08년의 식료품의 가격상승으로 십여 개의 국가에서 높은 식품 구입비용에 대한 공공 시위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해임되기도 하였다.

2010-11년 동안의 식료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저항 및 시위들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11년 1월 초 알제리에서 발생한 첫 번째 폭동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시위의 원인은 높은 식품가격과 식량안보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및 정치적 문제까지 포함되었다.

7. 결론 및 시사점

농산물 가격 상승과 하락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은 다소 다르고 그 변동의 규모와 기간은 상이하나, 과거에 가격 급등 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의 제약과 생산의 증가로 가격은 다시 하락하였다. 이러한 조정들로 인해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과거의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이 결정된다.

식료품 가격이 높아지면 국제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농부들은 이용 가능한 토지 내에서 다양한 작물들을 선택하고 추가적 생산 원료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 결정을 내릴 것이다. 기상이변이 없을 경우 국제 농업 생산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식료품 가격 급등의 원인을 경제성장, 환율, 에너지 가격과 같은 거시경제적 변수들과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변화, 바이오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한 수요변화, 무역정책의 변화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장·단기적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참고자료

USDA ERS, Why Have Food Commodity Prices Risen Again?, 2011. 6.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은 시기별로 다르고 그 변동의 규모와 기간은 상이하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의 제약과 생산의 증가로 가격은 다시 하락하였다.